

박보검 “루게릭병원 무사히 완공되길”



▲ 박보검 소속사 블러썸엔터테인먼트 공식 페이스북에 박보검이 '아이스버킷 챌린지'에 동참하는 영상을 올렸다.

박보검이 루게릭병 환자 요양 병원 건립을 위한 '아이스버킷 챌린지'에 동참했다.

박보검 소속사는 지난 30일 공식 페이스북에 박보검이 양동이에 가득 담긴 얼음물로 온몸을 적시는 영상을 공개하며 박보검의 소감도 함께 전했다.

박보검은 “국내 최초 루게릭 요양 병원의 건립을 위

한 아이스버킷 챌린지, 의미 있는 도전을 함께하게 해주신 선 선배님께 감사드립니다.” 고 밝혔다.

앞서 가수 션은 아이스버킷 챌린지의 시작을 알리며 다음 타자로 다니엘 헤니, 박보검, 소녀시대 수영을 지목했다.

박보검은 “루게릭 요양 병원 건립을 위해서는 저뿐만 아니라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의 관심과 도움이 필요하다.” 며 “따뜻한 마음들이 모여 환우 분들, 그리고 그 가족분들께도 큰 힘이 되었으면 좋겠다. 병원이 무사히 완공될 수 있기를 저도 함께 응원하겠다.” 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다음 타자로 배우 이준혁, 여진구, 곽동연을 지목했다.

아이스버킷 챌린지는 루게릭병 환우들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기부금을 모으기 위해 2014년 미국에서 처음 시작됐다. 얼음물을 뒤집어쓰는 장면을 영상으로 공유하는 이 캠페인은 SNS를 타고 세계로 확산했다.

각종 매체들, 앞다투어 'BTS' 조명

각종 매체들이 앞다투어 방탄소년단(BTS, 사진)을 조명했다.

미국 대중음악 전문지 롤링스톤이 방탄소년단의 성공 뒤에는 관심을 깨려는 노력과 세간의 시선을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롤링스톤은 지난 30일 '방탄소년단은 어떻게 K팝의 금기를 깼나'라는 제목의 “방탄소년단은 데뷔 때부터 성소수자(LGBTQ)의 권리, 정신건강 문제, 성공에 대한 압박 등 한국사회의 모든 금기를 노래했다.” 며 “이들은 모범적인 이미지를 유지하면서도 비판적인 노래를 만들며 아슬아슬하게 줄타기를 하고 있다. 덕분에 천편일률적인 'K팝 기계'를 비판하던 평론가들과 팬들에게도 신선한 인상을 준다.” 고 분석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전날 '방탄소년단이 역사를 만들고 있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방탄소년단은 수많은 '최초'를 경험했다. '아메리칸 뮤직 어워즈 2017' (AMA)에



서 K팝 그룹 최초로 공연했고, '빌보드 뮤직 어워즈 2018' (BBMA)에서 K팝 그룹 중 처음으로 라이브 무대를 선보였다.” 고 소개했다. 또 정규 3집 '러브 유어셀프 전 티어' (LOVE YOURSELF 轉 TEAR)가 빌보드 메인 앨범차트 '빌보드 200'에 오른 과정과 문재인 대통령이 공식 트위터로 축전을 보낸 사실도 자세히 설명했다.

CNN 방송은 지난 28일 빌보드 K팝 칼럼니스트 제프 벤저민과의 대담을 통해 K팝 열풍을 집중 조명했다. 벤저민은 “이번 사건은 세계 음악 시장에 있어서 대단한 일이다. 미국이 꼭 영어로 된 음악이 아니어도 좋은 음악에 눈과 귀를 열었다는 뜻” 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방탄소년단의 음악에는 언어를 넘어서는 메시지가 담겼다. 정치·사회적 이슈는 대중에게 친근한 아이템이 아님에도 이를 근사하게 전달할 방법을 찾아냈다. 그래서 한국의 언어와 문화를 굳이 몰라도 받아들일 수 있게 한 것” 이라고 추켜세웠다.

머라이어 캐리, 전 남친에 받은 약혼반지 비밀리 팔아



가수 머라이어 캐리(사진)가 전 남자친구 제임스 파커에게 받았던 약혼반지를 판 것으로 알려졌다.

연예매체 '페이지 식스'는 지난 28일 “머라이어 캐리가 전 약혼자인 제임스 파커에게 받은 1,000만 달러 상당의 반지를 비밀리에 팔았다.” 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머라이어 캐리의 전 약혼자인 호주 재벌 제임스 파커가 선물한 이 반지는 35캐럿짜리 다이아몬드가 박힌 것으로, 머라이어 캐리는 LA의 한 보석상에 시세의 5분의 1 수준인 210만 달러에 반지를 판매했다는 것.

이와 관련해 머라이어 캐리의 한 측근은 “머라이어 캐리가 반지를 판매할 것을 조용히 지시했으며 이미 계약서에 사인을 해 세상에 단 하나뿐인 그 반지를 보석상이 판매하고 있다.” 고 반지 매각을 인정했다. 이어 “머라이어 캐리는 최근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기로 선택했다. 그러기 위해서 전 남자친구에게 받은 옛 약혼반지를 포함, 감정적이고 물질적인 집에서 벗어나야 한다.” 고 덧붙였다.

머라이어 캐리는 2008년 배우 닉 케논과 결혼, 2011년 쌍둥이 남매를 얻었으나 2014년 파경을 맞았다. 2016년 1월 제임스 파커와 약혼했으나 같은 해 10월 파혼했다. 당시 머라이어 캐리는 제임스 파커에게 5,000만 달러(약 573억 원)의 파혼 위자료를 요구하며 반지 또한 돌려주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1214호 숫자퍼즐 (이번호 정답은 P57에 있습니다)									
5		1							4
9	7		1	8			5	2	
	3			2			8		7
		9	7	4					2
6	2						3		
		1				5			3
			5	9		1			
2			4				1		

부동산을 움직이는 사람들

30년 비즈니스 경험과 공인세무사인 제가 최강 용자 브로커와 헌팀이 되어 당신의 소중한 투자, 최대 효과를 만들어 내겠습니다.

JAMES RHO
Realtor R Myungsun Rho
BRE# 02059071

모든 비즈니스, 빌딩, 인컴 프로퍼티 찾아드리고, 팔아드립니다. 정확한 분석, 매의 눈으로 시장동향을 제시해 드립니다.

서둘러 상담하셔야 특별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적은 투자로 당신도 건물주가 될 수 있습니다.

애나하임 2 unit	부에나팍 4 unit	라하브라 2 unit	가든 그로브 2 unit
1-방 3 화 2, 2-방 1 화 1 본체 뒤에 따로 단독으로 나누어 있음 투자대비 포텐셜 최고 매물 백야드, 프론트 잘 가꾸어 있음 만족, 오래 머물지 않은 매물	1-방 3 화 2 2-방 2 화 1 1-방 1 화 1 렌트 잘나가는 지역 1031 Exchange 가능한 매물	1-방 3 화 2 1628 sq ft 2-방 1 화 2 700 sq ft 햇이 11920 sq ft으로 잘 생기고 관리 잘된 두채 독립 년 인컴 \$ 42,000 이상 주인이 살고 한채는 새주어도 아주 좋은 집 가격 20,000 내린 집	1-방 3 화 2, 2-방 2 화 2 두채 모두 크고 잘 업그레이드 되어있음 월 인컴 \$4,800 좋은 위치에 너무 좋은 매물
\$649,999	\$1,290,000	\$835,000	\$875,000

이외에도 원하시는 많은 리스팅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714.878.9245

6301 Beach Blvd #225,
Buena Park, CA 90621
Jamesmyungrho@gmail.com